

시민의 삶과 공공 건축의 조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의
건축 철학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들여다보기

서울도시건축센터



- 체계적인 DB&COLLECTION 구축 · 도시건축물의 수집, 평가, 보존
- 기본자료 수집 및 보존관리체계 구축 · 수장물품 활용 효율화 계획 수립

서울도시건축센터는 건축가와 사용자 간의 소통을 도모합니다.
공공건축 통합자료 시스템과 연계하여 서울의 공공건축문화와 역사를
가치 있게 보존하고 공유하는 최초의 플랫폼이 됩니다.

돈의문 전시관



- 서울 도시정비 역사와 기록 전시 · 돈의문마을 형성 과정과 변화 기록 보존
- 시민 주거변화 기록 · 지역 네트워크 거점 역할의 도시재생박물관

근현대 당시의 문화와 삶의 터전을 역사와 문화의 자원으로 보존하는
돈의문 전시관은 사라진 동네의 역사와 골목 문화를 기록해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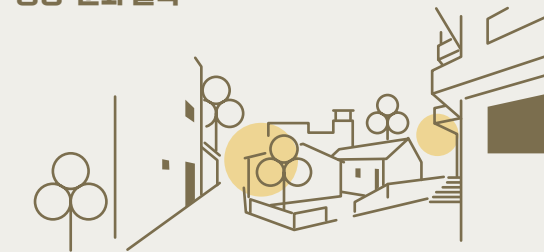
한옥체험시설



-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문화 체험 공간 · 문화·미디어 등 이벤트 공간
- 장·단기 체류가 가능한 프로젝트형 레지던시

1930년대 한옥 밀집 지역으로 조성되었던 새문안마을.
이 마을의 한옥들을 되살려 박물관마을의 문화체류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한옥의 고즈넉한 멋과 우리의 전통을 전하는
한옥체험시설은 세계 각국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고,
장·단기 체류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공방·문화 골목



- 다양한 기획 및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작업 공간
- 플라워샵, 드로잉, 수공예, 베이커리 등 스튜디오형 공방
- 음식점, 카페, 바 등 커뮤니티 형태의 생활 문화 공간

도시, 건축, 디자인,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창의적인 예술 활동과
협업을 통해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공유합니다. 아련하고 따뜻했던
어제의 추억을 나누고, 더 나은 오늘의 삶과 도시를 위해 함께 이야기하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공방·문화 골목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성城의 안과 밖을 이어온 터에
100년의 시간을 잇는 공간을 짓다

서울의 도시재생 철학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도시재생 Urban Regeneration



도시재생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쇠퇴하거나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새롭게 부흥시키는 다양한 도시 사업을 의미합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



경쟁력 강화 지역 불균형 완화 사람 중심 공간 확충 삶의 질 제고 재생 지원 기반 시민 역량 강화

서울형 도시재생은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공공이 머리를 맞대어 도시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함께 만듭니다**.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해 **함께 잘 살겠습니다**. 쇠퇴한 낙후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삶의 질을 높여 **함께 행복하겠습니다**.

돈의문 마을 도시재생의 의의

마을의 재생을 통해 동네의 역사를 되새기다

시간과 공간의 클라보레이션



개발, 재건축이란 단어는 과거와의 단절 또는 추억의 장소를 소실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편리함과 동시에 상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재건축 대신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선택한 것은 ‘재생’이었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재생을 통해 동네의 역사를 주민, 외부인들과 공유하는 ‘문화마을’을 대표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조우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추구하는 도시재생이란 옛 것을 허물고 새 것을 짓는 뉴타운식 발상에서 벗어나 건축의 상상력으로 공존의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 제2대 서울시 총괄건축가 김영준

서울의 도시재생은 시민들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가 모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 기반의 공공건축을 지향합니다**. 공적 기준에 맞춰 사라져버린 사적인 공간을 문화와 접목해 되살리는 도시재생의 모미,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가치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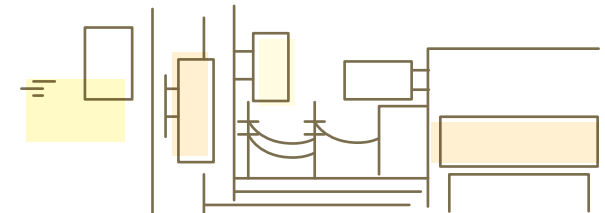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삶과 동네의 역사, 그 명맥을 잇다

한양의 사대문 중 하나였던 돈의문. 역사의 부침 속에 위치가 바뀐 것만도 두 번에 이릅니다. 한양의 서북쪽을 책임지는 주요 관문이었지만 일제 강점기에 전차 복선화라는 이유로 철거되어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돈의문이 있던 곳, 성벽아랫마을이나 새문안마을로도 불린 이곳에 서울의 정취를 오롯이 간직한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들어섭니다.**



골목, 잊혀진 우리의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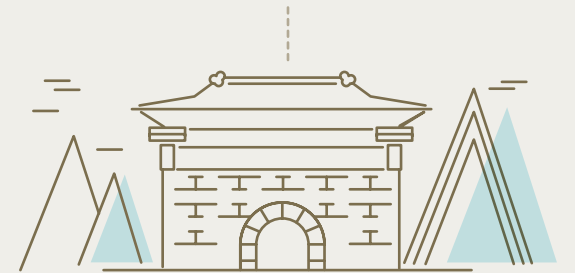
서울 도심 대로에서 단 몇 걸음만 들어가면 촘촘한 골목 사이사이 이웃들의 정감 어린 일상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대도시의 삭막함 속에서 서울시민의 일상을 지탱해준 것은 구불구불 찾아가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던 골목길 인심이었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골목과 오래된 간판, 켜켜이 쌓인 시간이 만들어준 아련한 정서를 되살립니다.**



돈의문 마을의 100년

성벽아랫마을, 서울의 100년을 담다

- 1910년대 | 오늘날의 골목 형성
- 1930년대 | 한옥 밀집지역 & 근대식 가옥 형성
- 1960 ~ 1980년대 | 서민 주택가 (과외방, 하숙집 열풍)
- 1980년대 | 약국, 식당 등 상점가 변신
- 1990년대 | 본격적 식당골목화
- 2000년대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돈의문 박물관마을 배치도



- 서울도시건축센터
- 한옥체험시설
- 돈의문 전시관
- 편의시설